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12.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의 상급

2013. 03. 2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어 오늘도 2장의 에베소 교회의 기별 중에 상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달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1~7]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야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지요?

답: 그렇지요. 한 구절 남았군요. 6절의 니콜라당에 대한 것은 악한 자와 거짓 사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만 남았습니다.

[계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편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기록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체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 강론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주제가 성령강림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옆에서 말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호하고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두신 예수 그리

스도의 교회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말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이 있지요. 말소리는 듣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들을 귀는 말귀를 알아듣는 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시록 강론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말소리만 듣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알아듣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 도우는 기미도 못 알아차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들을 한 번 읽어봅시다.

[눅9:45]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눅18: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은 사람들의 글자로 썼지만 하나님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눅24:45]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지 않으면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창40:8)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도 없이는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고전2:9~14을 읽어봅시다.

[고전2:9~14]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감히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성령도 삼위일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

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2:16)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는 것은 학문이나 학위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주장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말하심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학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엉뚱하게 풀이하게 되고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2.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답: 참 쉽지 않는 질문을 하시네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안다면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한 마디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성경의 목적을 잘 밝혀놓았습니다. 요20:30,31입니다.

[요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기적을 찾거나 역사적 사건이나 법률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읽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 학문이지 구원의 학문이 아니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기적이거나 무엇이든지 구원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 생명을 얻으려는 열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바르게 깨닫게 합니다.

3.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하겠군요. 인간적 사고방식이나 학문의 범주로 여기고 연구할 때에는 성경의 목적과 상관없는 결론을 얻게 되겠네요?(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것이 아니겠어요?

답: 이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장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로마 8:9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채워졌다면 교회는 바른 길을 걸어서 세상에 생명의 기별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예언된 역사를 살피면

알게 되겠지만, 교회라는 조직을 인간의 생각과 욕망으로 지배하는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경은 지천으로 출판되고 번역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는 기갈로 죽어가고 있지요. 이 사실을 오래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 예언을 했지요.

[암8:11~13]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하여 피곤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일곱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이 다 그렇지요.

4. 감사합니다. 정말 들을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말귀를 알아듣는 귀를 가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네요.

답: 당연하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0:4~6입니다.

[사50:4~6]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는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견디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생활하신 길을 유쾌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5. 예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답: 그 이야기도 예수께서 대답을 해놓았지요. 요16:13~15을 읽어봅시다.

[요16:13~15]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책이 아닙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6.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예수께서 친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지요.) 에베소 교회나 그 시대 교회만이 아니라 신자 개인이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답: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상급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기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렵도 없지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요16:33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서 자기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울 때에 자기가 싸워서 이겨도 문제고 쳐도 문제거든요. (이기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기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겼 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면 족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니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7.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되겠습니까.

답: 그렇지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기별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예수 안에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지요.

8.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 7절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말에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라고 하면 성경에 한 번 나타난 생명나무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에덴동산에 있던 바로 그 생명나무입니다. 에덴동산이라는 말이 바로 낙원이라는 말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창조해 두셨던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잖습니까?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잃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하여 그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 있던 바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것입니다. 아담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긴 모든 사람들이 그 실과를 먹을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그 이름이 생명과라고 할 수 있지요. 생명과는 그것을 먹을 때 생명을 얻게 하는 과실이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먹을 자격이 있는 과실입니다. 생명이 없

는 사람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를 떠나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예수님을 표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생명을 주는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9. 그렇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군요. 그러면 창3:22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어 영생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라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못 먹게 하고 에덴에서 내어보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문장 자체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 외에도 피조물인 나무 열매에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무 열매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생명을 유지하여 영생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사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되면 생명 자체가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요일5:11,12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본질과 모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3:22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미 생명을 잃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생명을 오직 생명이신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 전체에 계시된 생명문제와 모순이 없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생한다는 주장은 그들이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생명과의 효능으로 영생한다는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애청자들 중에도 저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할 기회는 되겠지요.

본론으로 가서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을 회복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금지되었던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 자의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과 산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0. 목사님의 생명과에 대한 설명은 저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애매합니다. 그 문제는 내어놓고, 아무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꼭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함께 거기서 생명과를 먹는데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답: 그래야지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에 드러내는 표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 확신으로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신앙하며 성령의 인도로 하늘까지 힘차게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결코 생명을 얻고 유지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